



▶ 파키스탄 들판의 모녀

제공: WMM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복음으로 설립된 연세대, 젠더 인권교육 안된다

재학생·학부모 ‘연대사모’, 필수 과목 반대

복음으로 설립된 ‘연세대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젠더 인권교육은 안된다’며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하 연대사모)’이 지난 13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대사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하고 거짓된 인본주의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젠더 인권교육의 필수 과목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소영 변호사(연세대 영문과 88학번)는 “연세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학교”라며 “학생들이 젠더 강의를 듣게 해 거짓된 인본주의로 인도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젠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한 인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평생 언약으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한 결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념”이라며

“연세대가 초심을 되찾아 시대와 나라를 선도하는 거룩한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성주 학생(연세대 언어교육과 15학번)은 “연세대의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교육 주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의와 질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강제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이에 앞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체 학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GNPNEWS]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로마서 6:16)

**기도** |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교육현장에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자하는 열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바쁘게 움직이던 일손을 잠시 놓고 들판에 두 모녀가 앉아 있다. 맨발을 벗은 채 흙 위에 뻗은 다리에서 노동의 피곤함이 느껴지고, 흘깃 뒤돌아보는 젊은 딸의 눈빛은 ‘이방 여인’처럼 많은 말을 하는 듯하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룓은 보아스의 발에 이삭을 주으러 나간다. 보아스는 남편이 죽고 없는데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유대 먼 곳까지 온 이방 여인 룓에게 호의를 베푼다. 곁에 불러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 룓을 위하여 이삭을 뽑아 흘려서 줌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한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영혼과 삶에 풍성한 호의를 베푸신다. 세상 그 어떤 돌보심보다 영혼을 더욱 만족케 하신다. 이 예수님을 사

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 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룓기 2:8~9)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5)

## “하나님을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자주 믿으라고 하니 난감하십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 전도자들이 눈에 거슬리고 밍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 제자

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인간을 넣어 만든 것이 ‘이단(異端, 끝이 다름)’입니다.

그런데 “부처를 보여 달라. 그러면 불교를 믿겠다.”라는 분은 없습니다. 부처는 역사 속의 인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까? 예수가 부처보다 더욱 확실한 역사

속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에나 나오는 전설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는 전 생애가 많은 사람에 의해 공증되도록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 속 진실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죄를 대



일러스트=김경선

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새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인간의 역사가 그 예수를 만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GNPNEWS]

###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하나  
 풀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돋아서 접은 전도편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돋아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http://www.jaki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 “선교지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 로그미션 선교캠프, ‘선교의 본질을 묻다’



▶ 선교캠프 전경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제3차 선교캠프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시온수양관에서 8월 12일(월)~15일(목)까지 3박 4일간 열렸다.

로그미션 새전락군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고등학교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170여 명이 참가해 국내외 현장 선교사들을 통해 제시되는 다음세대 선교, 대학생·청년 선교, 순회 선교, 한국의 선교역사 등 선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진행을 맡은 황재규 선교사(로그미션)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 버린 대학 캠퍼스와 한국 선교의

고령화 현상이 한때 선교사 파송국 2위였던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무색할 만큼 선교의 하향세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이라면서 “한국교회의 선교는 멈추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선교가 멈춰진 적이 없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열정을 외치고 전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바란다.”며 캠프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캠프의 주 강사를 맡은 김용의 선교사는 “선교는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됐다.”면서 “멸망할 세상을 심판해야 함에도 공의를 넘어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며 “선교는 성령의 증인된 자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일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최인혜 자매(이천순복음교회)는 “선교지에는 각 분야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마음을 울렸다.”면서 “주님만 남은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또 많은 참석자들이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행보를 걷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로그미션은 지난 5월과 7월에 열린 1, 2차 선교캠프에도 300여 명이 선교적 존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선교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그미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광전선교센터에서 매주 기도모임과 복음사경회, 그레이스 타임 등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유튜브 김용의TV를 통해 다양한 복음과 기도의 메시지와 함께, 선교동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GNPNEWS]

# 박해 받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자카르 코리아’ ... 10월 3일 개최

북한 정권의 탈북자 단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해받고 고통받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이 10월 3일 열린다.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 위한 모임인 ‘자카르 코리아’(www.zakarkorea.com)가 이날 강남역 더크로스교회(박호종 목사)에서 탈북민들의 간증과 증언을 듣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카르(zakar)’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주의를 더 기울여서 기도하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북한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은 탈북민 증인자들이 각 세션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간증과 증언을 할 예정이다.

약 5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연합



▶ 자카르 코리아 게더링 포스터(출처: zakarkorea.com 캡처)

하여 참여하는 이번 집회에는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포함한 탈북민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강의, 기도, 증언으로 참석하고 통일·북한 선교사역단체, 북한인권단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자카르 코리아는 작년 12월 10일에 처음으로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에서 가장 박해지수가 높은 북한인권

문제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동참하기 위해 시작됐다. 당시 40여 개 북한사역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3주 동안 ‘북한인권국제포럼’ ‘북한인권 그림전시’ 및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폭을 넓힌 바 있다.

문의: ☎ 010-8271-0444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5 ~ 8.17)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에볼라 치료제 임상실험으로 사망률 크게 낮아져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볼라로 목숨을 잃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 4종 중 2종을 임상시험 한 결과 사망률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땅의 영혼들이 몸을 떨하는 자가 아닌, 영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회복이 아닌, 영혼의 새로워짐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 미국 일리노이주, LGBTQ 역사 교육 의무화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LGBTQ) 역사 교육이 의무화 되었다고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이 보도했다.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행할 때,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의 태도를 담대히 취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비를 취하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 일리노이주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 시에라리온, 홍수로 7명 사망·이재민 8000명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최근 폭우에 따른 홍수로 7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8000명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에는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로 110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하나님,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시에라리온을 긍휼히 여겨주소시오. 우리는 매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증인들을 통하여, 강력한 물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청원 기각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경기도의 성평등 조례에 반대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청원이 기각됐다고 국민일보가 16일 보도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반대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지지했으나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8월 6일 답변서를 통해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죄(罪)라고 설교할 경우 성평등 위원회로부터 소환되어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막아주소서. 하지만 여기에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주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8월 26일 ~ 9월 7일

- 8월 26일 ~ 8월 31일 ▶ 경기 성남 / 금광교회(임\*\*)010-9943-3989,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윤\*\*)010-4916-1263, 8.26(10~22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8.26~28(16~18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8.26,28,31(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8.27(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8.28(06시)~29(06시) ▶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8.29(11~13시) ▶ 인천 연수 / 인천안다독선교회(이\*\*)010-4200-5237, 8.30(20~22시) ▶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8.30(20~22시),31(14~16시) ▶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그외 9교회 진행중.

- 9월 2일 ~ 9월 7일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이\*\*)010-3737-3629,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9.2(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9.2(0시~24시) ▶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9.2~3,6~7(19~22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9.3(0~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9.3,6(10~12시)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김\*\*)010-6269-4821, 9.6(12시)~7(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9.7(06~12시) ▶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1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월트디즈니는 동성애 장면을 빼라”, 각국 항의 잇따라

## 미국, 국민서명 촉구... 프랑스, 40만 명 반대 서명 운동

월트디즈니가 만화 시리즈를 통해 온 세계 아이들에게 LGBT(레즈비안·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세뇌하고 있다고 다음세대의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매체 TV NEXT가 최근 보도했다.

디즈니XD 채널에 방영되는 ‘별 vs 악의 힘(Star vs. the Forces of Evil)’에서 주인공 공주들이 외치는 말을 통해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원하는 젠더가 곧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소년 ‘말코’는 공주들을 학교의 무서운 교장에게서 구하기 위해 ‘투루디나’라는 공주로 위장하고 학교로 들어간다. 어느 날, 교장이

우연히 투르디나 공주 가슴에 털이 있는 것을 보고 공주가 남자인 것을 알게 되어 투루디나로 변장한 말코를 쫓아내려고 하자, 학교의 공주들이 LGBT 고전적인 이데올로기 슬로건을 외친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공주도 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공주가 남자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남자도 원하면 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투르디나의 마음 상태가 여자입니다!”

매체는 “이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이며 동성애 운동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디즈니같은 곳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뿐 아니라 ‘토이 스토리 4’에서도 두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온다.

매체는 이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토이 스토리 4’를 보고 그 두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두 엄마가 가능하지? 아빠는 어디 있을까? 두 여성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이 들게 한다.”고 전했다.

현재 디즈니는 ‘겨울왕국 2(Frozen2)’에 등장하는 ‘엘사’가 레즈비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018년에 발표한 ‘정글 크루즈’라는 가족 영화에도 동성애자 역이 있으며 2017년에 디즈니 주니어가 2~5세 어린이를 위한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꼬마 의사 맥스 터핀스’에도 2명의 동성애 엄마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했다. 또 ‘미녀와 야수’에서도 르푸와 개스톤 사이의 동성애 장면을 포함시켰다. 2016년 ‘도리를 찾아서’와 ‘주토피아’에 동성애 커플이 등장한다.

이런 월트디즈니의 친동성애적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동성애 홍보대사를 자임한 월트디즈



▶ '디즈니랜드 게이'의 날'에 빨간 옷을 입고 신데렐라 성 앞에 모인 인파(출처: en.wikipedia.org 캡처)

니는 1991년부터 매년 6월 첫 토요일에 플로리다주에서 ‘디즈니랜드 게이’의 날’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디즈니 월드는 LGBT의 손꼽히는 신혼 여행지이며, 가까이에 있는 더블트리 리조트는 이 행사의 공식적인 호텔로 여겨지고 있다. 리조트는 LGBT를 위한 다양한 욕실, 섹스 토이, 무료 건강 검사, 예방 접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6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동성애 행사 ‘매직 프라이드’에 항의하는 40만 명의 서명 후에 디즈니는 웹 사이트에서 이 퍼

레이드를 참조하는 웹 페이지를 내렸다.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예정됐던 행사도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 소규모로 진행됐다. 그러나 9월 초,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디즈니사가 정치적인 동성애운동단체들과 손을 잡고 어린이아이들의 영혼을 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디즈니 사장에게 LGBT 장면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GNPNEWS]



▶ 디즈니XD 채널에서 방영중인 ‘별 vs 악의 힘’(출처: disneynews.us 캡처)

# 에이즈 환자, 대부분 남자 동성애자... 치료비 대부분 국민세금으로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8월호는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란 제목으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본지는 이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환자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동성애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혐오자로 몰아가며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혐오자라고 매도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 비참한 에이즈 환자의 실상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염 원장은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에이즈 환자를 병원에서 받게 됐다. 에이즈 환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사명으로 받은 염 원장의 병원에는 그 이후 에이즈 환자

들이 몰려오게 됐다. 이런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는 7만 번.

이 같은 진료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이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대부분 남성간 성관계에 중독되어 있었으며, 항문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갇아 먹어 20대에 치매에 걸린 환자, 식물인간, 전신 마비, 반신 마비 등으로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 에이즈 환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투입

2018년 8월 국내 7대 의대 연구팀이 에이즈 환자 1474명을 역학조사한 결과, 국내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병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사실은 에이즈 약값, 입원비 전액, 간병비까지 치료비가 모두 국민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혜택은 보



훈 대상자보다 월등히 좋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비용을 포함하며 에이즈 환자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은 연간 6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10개 만성질환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진료에서 에이즈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누구도 받기 힘든 혜택을 국민 세금으로 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권단체의 이상한 인권보호

염 원장의 병원에 입원해서 14

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김○○(당시 33세)이라는 에이즈 환자를 두고 동성애 에이즈 인권단체(이하 인권단체)가 이른바 환우에 대한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환자의 전원(병원을 옮기는 일)을 요청한 세브란스병원은 환자는 HIV감염으로 면역저하가 심각했으며 복막, 장, 간, 폐, 비장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결핵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환자이며 보호자인 어머니에게도 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진료가 소홀했다고 공격하며, 한국일보에 이들의 주장을 믿고 기사를 냈다가 나중

에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했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는 인권단체에 “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잘 돌봐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 부모도 이분(염안섭)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더 이상 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하지 말라.”고 그들이 계획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권단체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 차별금지법 제정시 동성애 반대 어려워져

만약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다. 또 잘못된 법으로 인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는 더욱 범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어난 의병처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의병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21)

## 지구의 지각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진’ 홍수 때 등장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물의 장막은 지구 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표 안에도 있었다. 시편 24편과 시편 136편은 “땅은 여호와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와 홍수 위에 세우심이어”, “땅을 물 위에 피신 이에게”라고 말한다.

지금 바다에 있는 거의 모든 물은 지표 안에 있던 물이었다.

창조 당시, 약 10~20인치(약 25~50cm)정도의 물이 대기권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얼음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 쉴 공기가 약 10~20마일(약 16~32km)정도 있었을 것이다. 흙과 바위가 지금도 존재하는 이 지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표 안에도 물이 있었다. 바로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할 때 지표 밖으로 뿜어져 나온 물일 것이다(창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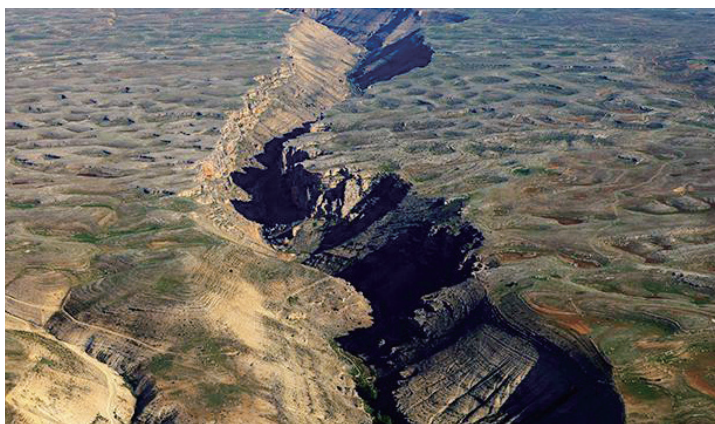
지금도 지표 안에는 많은 물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뜨거운 물줄

기가 해양바닥에서 분출할 수는 없다. 바다 밑에서 뜨거운 물줄기는 어디로부터 솟아나야 할까?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나와야 한다. 바다 밑에 거대한 열수 분출구가 있어서 뜨거운 물 일부가 지금도 나오는 것이다.

홍수 때 열려 깨졌던 틈이 여전히 지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지각 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지각 판인 샌 안드레아스 단층, 헤이 강 단층, 뉴 마드리드 단층, 황금 단층 등에 가보면, 지각 표면에 틈이 있다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지진은 그 단층들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

이처럼 땅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도 의문이 없고 지각판들이 여전히 움직인다는 것에도 의문이 없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생겼냐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수백만 년 동안 생겨났다고 하지만, 창조론자들은 이 모든 재앙이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진’ 홍수 때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홍수가 이 모든 단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홍수 때 지표 밖으로 솟아나온 땅 아래의 물은 오늘날에도 존재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안드레아스(San Andreas) 단층의 모습(출처: codigoooculto.com 캡처)

하고 있다.

### 홍수 전에는 기압을 높여주는 얼음 장막 있었다

최근 ‘아마도 산소 부족이 공룡을 죽였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왜 산소부족이란 말이 나왔을까? 1993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아파토사우루스에 대해 연구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80피트(약 24미터)길이의 아파토사우루스가 말만한 크기의 콧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80피트짜리 동

물이 말만한 크기의 콧구멍을 통해 충분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까? 아파토사우루스가 충분한 숨을 쉬려면 아주 세게 들이마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바람의 마찰에 의해 콧구멍 속에서 불이 났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공룡들은 숨을 쉬었고 생존했다. 공룡 뼈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극과 알래스카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이 공룡은 모든 곳에서 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80피트의 동물이 충분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까? 오늘날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홍수 전에는

기압을 높여주는 물이나 얼음 장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진한 산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 석화된 나무 잔액인 호박 안에서 공기방울들이 발견되곤 한다. 그 공기방울들을 분석한 사람들은 그 안에 지금보다 50% 더 많은 산소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21%의 농도인데, 호박 안의 공기방울들에는 32%의 산소가 들어있었다. 만약 기압이 두 배이며 산소가 50% 더 많은 곳에 살고 있다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인 것이다. 기압을 두 배 높이고 산소를 늘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혈장도 산소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은 피곤해지지 않고 수백 마일도 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는 차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원하는 곳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운다.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던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그것은 환원성 대기라고 불린다.” 미안하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이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명체는 진화하는 커녕, 존재할 수조차 없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50년... 희년처럼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농부가 마치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M국의 일꾼들은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 모바일 앱(Spring in the Desert)을 만들어 기도의 동역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미전도 종족의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기도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폐쇄되고 알려지지 않은 이 나라는 1970~80년대의 가뭄으로 NGO 단체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복음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2009년 6월 23일 크리스토퍼 에빈 레게트(Christopher Ervin Leggett) 순교사건으로 거의 절반의 사역자들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50년을 맞았습니다. 희년처럼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고 여겨

집니다.

우리는 이곳의 거처를 옮기면서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사역을 내려놓고 일 년 정도 주님께 다음 걸음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즈음에 주님은 이웃 텐트 집에 사는 한 아이를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주위에 수많은 텐트에 사는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놀 것을 찾아 길거리를 이리 저리 헤매는 아이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지 않겠냐는 마



▶ M국의 아이들.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주신 마음만으로 텐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두 텐트 집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만나 처음에는 4, 5명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 지금은 40여 명이 모입니다.

M국은 신분계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흑인 무어들은 절대 빈곤층에 속하며 수도에서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텐트에서 많이 거주합니다. 이들은 교육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코

란 교육 외에는 공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외된 아이들을 모아 텐트 학교를 열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때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 나오는 살마리라는 여자 아이는 7살입니다. 살마리는 위로 오빠와 이제 막 태어난 동생이 있습니다. 살마리는 더하기와 빼기를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수줍게 처음 공부를 시작하던 때와 다르게 점점 개구쟁이처럼 빼박하게 행동하던 아이가 요즘은 수학을 하며 격려 속에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오빠들에게 치이고 어른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못해서 인지 순간순간 개구쟁이짓으로 당혹스럽게 하던 살마리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 안에 담아놓으신 꿈이 마음껏 펼쳐지고 살마리가 속히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과 신뢰를 쌓아가

는 과정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와 태권도, 미술도 배우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이사야 66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찌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는 텐트촌 아이들을 주님이 잉태케 하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해산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 (사 66:9) [GNPNEWS]

M국=박바나바, 심실라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저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17살에 복음을 만나고, 주님께 '나도 써 달라'며 기도하다 거리에서 만난 중국 노숙인들을 섬기고 팔과 다리가 없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며, 믿음의 바닥을 쳤지만 주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셨다. 1996년생, 올해 24살의 청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들어본다.

-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변화했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교회에 열심히어서 저도 열심히였죠. 찬양리더, 인도자, 섬김이... 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섬겼어요. 성경도 열 몇 번 읽었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머니를 통해 고1때 공연예술로 복음을 섬기는 한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음학교에 갔어요. 그때 십자가 복음은 충격이었어요. 뭔가 다른,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번 섬김이로 참여하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저는 2006년에 중국에 가서 12살 때부터 '절강성(浙江省)'이라는 지역에서 동생과 함께 외삼촌댁에서 유학중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선교를 생각하고 준비시키신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학교에서는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PC방 다니고, 아이들과 싸우고 도둑질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때려서 기절시켰는데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 안팎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 이중적인 모습을 밝히 비취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죠. '나 같은 놈을 왜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런 사람이어서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타오르듯 한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고 결정했어요.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던 중 중국에서 의료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의료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고, 2015년 9월 북경대 의학부에 입학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의사자격증을 준 것은 1년 정도 되었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죠.”

## 17살, 주님을 만나다

- 한국인으로서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요.

“13억 중에 500명 정도 들어가는



©복음기도신문

## 예수님을 따라가는 최현식 형제(중국 북경대학 의학부)

북경대 의학부에 통과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사실 머리가 정말 안 좋아요. 유학생으로 혜택도 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쉽지 않았죠. 의료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3때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저를 불러 주신 거예요. 지금은 본과 4학년 2학기 휴학중이에요. 3학년 2학기부터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사실 저는 복음을 만난 후 선교사 결단을 하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입학 제한 연령이 18세까지였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서 제 안에 의문과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시 북경에 도착해서 공부를 할 때도 선교사로 폴링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어요. 나도 주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고보니 다른 것이 정말 의미가 없었거든요. 주님께 '나도 좀 써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며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노숙자가 보였어요. 저분들을 섬기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노숙자분들을 찾아갔어요. 여름에는 차가운 것,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들고요.

그러다 한 할머니가 여기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마침 한국인 과외 선생님이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

말씀을 짧게 나눴어요. 그렇게 4년을 함께 예배드렸어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도움을 줬지만 이 사역을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도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 하는 사람들이 맞나?' 게다가 중국 노숙인 어른들은 글을 읽지 못하세요. 말도 어눌하구요. 제가 복음을 나누면 저분들이 과연 알아들을까? 늘 막연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여러 사건과 열매로 깨뜨리셨어요.”

## 로마서를 통째로 외운 노숙인 할아버지

- 어떤 열매를 보여주셨나요?

“먼저는 그 사역에서 섬김을 받던 한 노숙인 자매님이 복음을 받으시고 자신과 같은 노숙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와 고백을 들으면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세우시고 또 다른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또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와 부활절이라는 두 개의 큰 행사를 갖고 있어요. 한번은 성탄절 선물을 드리면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내년에는 1년 동안 주님께 드릴 선물을 함께 준비해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다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께서 자신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서, 대신 한 청년에게 매일 로마서를 읽어달라고 해서 1장부터 마지막장까지 통째로 로마서를 외워 오셨어요. 그리고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로마서를 외우셨어요. 그분 연세가 78세예요. 이 복음은 생명으로 전해지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제 연약함과 말 주변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살아계셨고, 지금까지 주님은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 믿음의 시험

- 놀라운 은혜네요.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공: 최현식 형제

▶ 노숙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뜻하지 않은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됐어요. 내부적인 관계의 문제가 발단이 돼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고, 자칫하면 중국에 더 있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여러차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 위기에서 제 믿음의 밑바닥을 찍었어요. 입으로는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사람들의 조롱이 들리는 듯했어요. '너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대학 나와 의사하면 앞날이 창창한데 왜 이려고 살아?' 이런 조롱에 믿음으로 대답해주기는커녕 '나 정말 왜 이려고 살지?' 제 자신도 질문에 빠져들었어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그게 2년 전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던 날, 하늘은 짙짙한데 비가 왔어요. 주님이 이런 내 꼴을 보시고 우시는 것 같은 초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철저한 절망을 겪으면서 동시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는 교회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지?' 사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교회 자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 거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그 일 후에 2주간 교회에 안갔어요.”

## 믿음의 시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 주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해결해 주셨나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역울하게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이 보였어요. 얼마나 역울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나에게도 벌어졌구나...'하는 마음이 들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분노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저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었지만, 침묵했어요. 침묵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장소를 옮겼어요. 옮긴 곳은 더 험한 곳이어서 더 추웠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교회는 없고 목회자도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두어차례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 시험의 연속이었군요.

“이제는 외국인인 제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 중국인들과 예배하는 기회를 허락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 (3)

# 헌신은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

부패한 세계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점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다(계 7:9~10).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사막에 꽃이 피며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임하고 있다. 그 영광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순전하게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산 제물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롬 12:1 이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만 한다. 신부가 신랑을 향한 열심(고후 11:2)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처럼, 적당히 발목만 물에 담가보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가 자신을 집어삼켜 그 안에서 엄청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만끽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전부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는 교제의 방법이며 동시에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요 4장).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믿어야 한다.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서에 우울함이 느껴진다면 속고 있는 것이다. 나로서는, 나의 옛사람으로 주님께 결코 헌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은 결국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부인하고 이제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



일러스트=노주나

곧 헌신이다.

헌신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할 수 있다. 병을 고칠 때도 의사를 신뢰해야 내 몸을 맡길 수 있듯, 나의 인생과 내 존재 전부를 맡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만 한다. 신학적인 동이나 교회

를 오래 다녀 직분을 얻은 것과 '삶을 드러 나를 주님께 맡기는 일'은 다르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평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건 부담된다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한다.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패에 단 한 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약속한 모든 일은 역사 가운데 분명한 실체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의 결론은 말씀인가 상황인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욱 실제인가? 우리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존재다. 주님이 일부러 무능한 자들을 불러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고전 1:25 이하).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먼 미래까지 버틸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분초마다 주님 붙드는 믿음을 취하자. (2017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

**복음과 영적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

**복음의 디아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

**복음에 반역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

**복음의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

**복음과 박해받**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52기도정보 Ver.8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J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시엔즈, 왜 나는 노숙자여야 해?”

하셔서 지금은 제가 모든 사역에서 손을 떼고 중국 현지 형제 자매들과 기존에 헌신을 하셨던 노숙인 자매님이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노숙인 분들이 전도자 한 명을 후원해요. 주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 또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노숙인 어르신들의 영혼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고 그분들은 저를 손주라고 부르세요. 또 '헌신'이라는 제 이름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시엔즈'인데, 성조에 따라 '선지자'라는 뜻이 있

어요. '선지자님'하고 저를 부르시는 게 되는 거죠. 성조를 바꿔서 불러달라고 해도 그렇게 돼 버려요(웃음). 자격 없는 존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감격스럽죠.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시엔즈, 왜 나는 노숙자여야 해?” 왜 하나님이 자신을 노숙자로 불러주셨을까?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답해드렸어요. 그리고 3주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로 답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기도자'라는 것이었어요.” [GNPNEWS]

E.J.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제공: 최현식 형제)





# 계주 경기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 앞에서 기다렸다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을 한다. 그러나 운동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보인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애보다는 운동을 못해, 애보다 운동을 잘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나보다 운동을 못하는 친구를 깔보게 된다.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습관처럼 화를 내기도 한다.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즐겁게 하지 못한다.

본능대로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 진리로 바로 잡을 필요를 느꼈다. 다음세대 선교사로 헌신했으면서도 삶에서는 잘하다가도 운동만 하면 다투며 이상한 분위기가 되



일러스트=고은선

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떻게 운동하기를 바라시는지 알아보았다.

성경에서는 운동을 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연단이 우리 삶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한다(딤후 4:8). 그러나 세상에서는 경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1등만 기억하게 한다. 결국 운동이 자신을 위한 것만이 되어버린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함께 연합된

존재라면 운동을 할 때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므로 운동을 할 때도 나의 주된 목적이 드러나야 한다.

운동도 복음으로 해야 한다. 복음으로 운동한다는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학교 체육시간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운동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다.

과거 일반학교에 다닐 때 체육시간은 그냥 운동하는 시간일뿐이었다. 그런데 헤브론원형학교의 체육은 나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게 했다. 그저 나만을 위해 뛰던 내가 이제 지체를 살리기 위하여 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뛰게 되었다. 그런 나를 보며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난 그 누구보

다 나 자신을 위해 운동을 했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때는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이 곧 운동을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운동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합당하게 운동을 했는가?'라는 양심의 질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지.'하고 무시한 채 똑같이 살았다. 그래서 이웃사랑 운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운동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깨트려 주셨다. 운동은 지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의 한 장면이다. 계주 경기 마지막 주자로 뛰던 한 형제가 뒤따라오던 형제를 결승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왔다. 그 때만큼은 양 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뻐했다. 나도 처음에는 아까운 점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

님이 하셨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기기 위한 운동이 아닌 지체를 사랑하는 운동,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경기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우리의 운동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운동이다. 우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킬 주역들이다.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처리된 예수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 운동을 통해 예수생명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웃사랑의 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 함께 운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자. [GNPNEWS]

신정윤(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탈북차단하려는 국경통제, 북한 주민 생활고 악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2019년 여름,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압록강 너머 주민들이 생계수단을 잃는 등 생활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봉쇄하고 밀수를 차단하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국경초소가 증설되어 요즘 국경은 이중삼중으로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이에 국경통제가 사벌해지면서 소규모 보따리밀수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골목길에서 음식장사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팔아도 준비한 음식의 절반도 팔지 못할 때가 있어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돌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 소식통은 "민생은 외면하고 체제 안전만을 위해 국경을 막아

버리니 밀수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소득원천이 없어 힘들고 장마당 상인들은 물건을 공급받지 못해 장마당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국경통제 여파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활난으로 이어지면서 압록강 주변 주택가격들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언급했다.

또 "해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던 종합시장 주변도 요즘엔 한산해졌다."면서 "국경 도시라서 내륙 지역에 비해 시장도 활기가 있고 장사가 잘 되던 해산시 주민들이 당국의 철통같은 국경통제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국에 중국과 마주한 국경 도시들을 새롭게 단장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내려와 국경에 인접한 해산시 강안동, 위연동에는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해산 시내 아파트보다 좋지만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2만~3만 위안의 싼 값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 해산주민은 "새로 지은 아파트는 걸만 번지르르하고 온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안에 들어가면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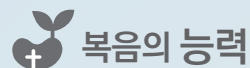
▶ 중국에 목재를 수출하고 있는 해산시 북중합영회사 전경(출처: rfa.org 캡처)

숙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금 국경 도시 김정숙군에서는 주택마다 지붕기와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와 읍을 비롯한 농촌마을에도 지붕기와를 교체하느라 분주하다."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색깔기로 지붕을 바꾸라니 서민들은 품질이 낮은 흙 기와로 지붕갈이를 하느라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해산시에서 유리를 생산하던 국영공장이 폐쇄되고, 그 건물이 북중합영회사로 이용되고 있다. '장군님 따라 천만리' 구호가 나붙은 건물에

중국인들이 상주하면서 북한노동자들이 통나무로 가공한 합판과 목재를 만들어 중국에 보내고 있다.

합작회사노동자들은 월급과 배급이 있지만 압록강 기슭에 자리 잡은 종합기계공장 등 국영공장노동자들은 공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식량공급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합작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러워하면서도 귀중한 산림 자원이 합판으로 가공되어 중국에 헐값에 수출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라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GNPNEWS]



### 죄에서 자유하는 법

도덕적 질서에서 벗어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을까? 이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사회에 만연된 죄악들이 사회 윤리와 도덕 질서를 강조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동정심을 펼치면 가능할까? 아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할 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흉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엄청난 죄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주의 말씀에 반항함으로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완고함에서 비롯된다. 자유는 법을 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라.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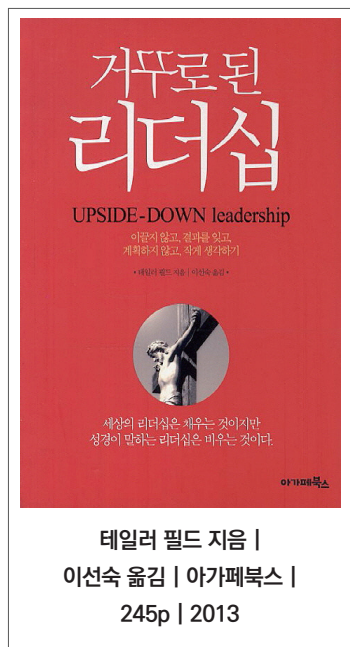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거꾸로 된 리더십 <테일러 필드>

#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거꾸로 된 리더십'은 세상의 많은 리더십에 대한 기준과 이론을 뒤집어엎는다. '거꾸로 된 리더십'의 저자는 뉴욕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은 교회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유명하지도 않고, 굉장한 사역의 열매도 없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 그가 영향력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 세상의 많은 리더십에 대한 기준과 이론을 뒤집다

이 책에서 그가 제안하는 리더십의 10가지 원리는 우리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한다. 1. 이끌지 마라. 2. 결과를 잊어라. 3. 계획하지 마라. 4. 작게 생각하라. 5. 실패자들과 어울리라. 6. 최첨단을 벗어나라. 7.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라. 8. 상자 안에서 생각하라. 9.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 10. 수치를 감수하라.

저자가 말하는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리더십의 가

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을 믿는가?'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안다면, 이끄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분의 크고 위대함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우리 힘으로 이해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려는 모든 노력들을 멈추게 된다. 결과나 목적, 목표 같은 단어는 주인이 사용하는 단어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으로 부름 받지 않았다. 순종과 충성, 민감함이 종의 언어이며 우리의 소명이다.

##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을 믿는가?'

사람과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을까.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미치고 있기에 현재도 그의 믿음의 결과를 다 가능할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르는 가장 사소한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위

대한 업적보다 더 힘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드러나는 행동이 거룩한가가 아니라 그 안에 쏟아 부은 사랑이다. 작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리더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사용해서서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셨다. 늙은이의 지팡이로 민족을 구원하시고, 소년의 돌맹이로 적장을 쓰러뜨리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탁월함이 주목받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게 된 우리의 연약함과 적은 자원은 쓰임받기 딱 좋은 상황이다. 우리는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내는 리더십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은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을 모으기 보다는 오

히려 떠나게 하시고, 배신할 제자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와는 결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다. 최악의 파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리더인 것만 같은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능력과 재정 논리, 최첨단 기기들과 시스템, 안정된 조직이 오히려 위협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십을 갖추어 가려다 보니 어느새 사랑과 순종, 절대 믿음의 초점은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우리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을 통해 더욱 드러내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그것을 간파하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을 마음껏 신뢰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는 자가 되자. [GNPNEWS]

이귀영 선교사

##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 예고 없는 평가, 모니터링, 현장 조사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 처음 받아 보는 현장 조사

어느 월요일 오전, 외근을 나가 있는 사이 갑작스럽게 현장 조사를 나왔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흑시모를 상황을 대비한 경찰도 출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현장 조사인데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과 경찰의 출동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서류를 영치하여 조사에 응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 했고, 모두의 서명이 마치자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비 된 서류를 제출하고자 서류 작성에 힘쓰며 "하나님, 근무시간과 업무에 태만하고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조사를 하는 그들의 눈도 가려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본마음은 잘못된 것이 있을까봐 도망가고 피하

고 싶었습니다. 그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겹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하지만 주

를 감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20년 가까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지체들과 했던 믿음의 싸움들, 리더의 자리, 계속된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도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제 모습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도망치고 싶어 하는 제 옛자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하지 않고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삶속에서 확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

사실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조사하는 사람들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직장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감사하게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GNPNEWS]

김한나



일러스트=이수진

님은 절대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충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고통

망치고 자유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대충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8. 1 ~ 8. 15 (가나다 순)  
개인  
강인숙 권순호 김경선 김사회 김유남 노은옥 박성규 배현순 신유정 안민자 안수경 오대현 유국주 유정재 은종숙 이동희 이 순 이영옥 이준진 이지수 이진희 장근혜 정영배 정효진 조상국 조정자 조형광 최근희 최정숙 황지환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국교회 샘물교회 생명나무교회 쉼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소망교회 죽전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